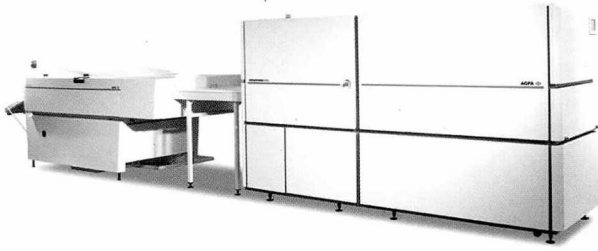


그라메디아 아그파 CTP시스템 채택



내셔널지오그래픽 인도네시아판 제작사인 그라메디아사가 아그파의 바이올렛 CTP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그라메디아사는 일간지 및 70가지가 넘는 잡지를 제작중인 대형 인쇄 회사로 지난해부터 갈릴레오 CTP시스템 및 서블리마 스크리닝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아그파의 CTP시스템에 탑재된 oss-modulated 스크리닝 기술인 서블리마의 우수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340pi의 이상의 해상도 구현이 가능해 사진 품질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스트UK 본사 사무실 이전

영국의 더스트UK(Durst UK)는 더비 지역에 위치한 현대적이고 새로운 사무실로 본부를 이전했다고 지난 7월11일 밝혔다. 이 사무실은 생산 실습실과 회의실을 포함한 최신식의 시연 시설을 제공함은 물론, 교통 여건 측면에서도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더스트UK의 관리이사인 그램함 이반스(Graham Evans)는 "새로운 사무실로의 이전은 오스트리아 리엔쯔 지역의 제조 시설을 두 배로 늘린 것을 포함, 더스트사의 사세 확장 정책의 하나이다. 우리 사업의 생산력 향상은 지금까지 활발했던 적은 없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최근에 Theta 76 멀티 포맷 디지털 실험 시스템, 시그마 67 고속 필름 스캐너, 프린트 서멀, 디지털 파일 에디팅 스테이션 등 포토그래픽 프로덕트 4대를 새로 설치했다. 게다가 Rho 600, Rhopac 등 포장 산업 분야 최초의 UV 전용 잉크 평판 프린터 2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HP 인디고 커스토퍼 포럼 출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 지역의 HP는 네트워크 및 사용자 그룹으로 기획된 HP인디고 커스토퍼 포럼을 출범했다. 필라델피아 소재 투데이 그래픽스(Today's Graphics)의 잭 글래켄 사장은 포럼 대표자로 지명됐다. 이 포럼을 통해 HP인디고 고객들은 주목받는 기술, 사업, 마케팅 이슈들과 관련한 경험 및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강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HP 이미지 프린팅 그룹 미국 커머셜 세일즈 담당 리치 레이몬디(Rich Raimondi) 사장은 "HP인디고 커스토퍼 포럼은 현존하는 모든 고객 지원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것과 고객들에게 HP 디지털 프린팅 전문가 및 솔루션 파트너와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트란테크놀로지·에스코그래픽스 유통 협정 체결

미국 오하이오주 반달리아 지역의 라트란테크놀로지(Latran Technologies)사와 벨기에 겐트 지역에 위치한 에스코그래픽스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 유통망 협정에 들어갔다. 라트란사는 라트란 프리덕션 디지털 하프톤 프루핑 시스템과 관련, 에스코그래픽스의 FlexRip 다용도 립의 판매를 맡게 될 예정이다. 에스코그래픽스에 따르면, FlexRip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는 프리덕션(Prediction)이 플렉스 플레이트, 패키징 고객들에게 딜리버링 시스템과 같은 하프톤 망점 이미징을 가능하게 한다. 이 FlexRip을 제공함에 따라 프리덕션은 사용되는 인쇄재질의 측면에서 인쇄기로서 똑같은 스크리닝을 보여주는 망점 기반 교정을 실현하는 에스코그래픽스 워크플로로 통합된다. 에스코그래픽스 워크플로 환경의 주요 구성인 FlexRip은 넓은 범위의 출력 장치를 제공하고 출력 형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다용도의 립이다. 또한 디지털 프린팅을 포함한 인쇄 공정 범위의 스크리닝 기술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하이델베르크 AP지역 총 책임자 벤트 모텐슨 임명

하이델베르크사는 지난 4년간 본사에서 오프셋, CTP, 프리넥 워크플로와 인쇄 재료 부문을 관리해 온 벤트 모텐슨(Bent Mortensen)을 7월1일부로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총 책임자로 임명했다. 벤트 모텐슨은 덴마크에서 여러 비즈니스 스쿨을 이수하면서 코펜하겐에 위치한 East Asiatic Company(EAC)에 참여하기도 했으며, 그 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지의 EAC에서 다양한 관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가 아시아 지역의 EAC 판매 회사들을 인수한 1998년 싱가포르에 위치한 하이델베르크 아시아 퍼시픽의 인쇄기와 후가공기의 책임자가 되기도 한 모텐슨은 아시아 지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퍼시픽 지역은 11개의 하이델베르크 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이 해당된다.

물러마티니 오픈하우스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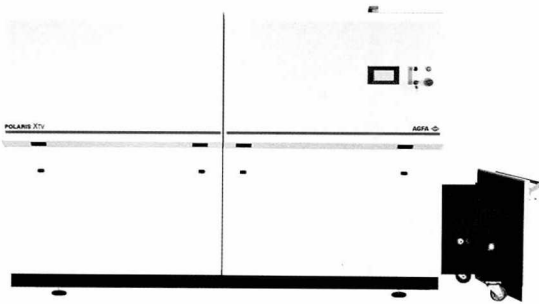
미국 뉴욕주 하우포지 지역의 물러마티니는 지난 6월에 스위스 오프트 링겐에 소재한 시설에서 전세계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물러마티니 인쇄 후가공 생산 라인 보유 업체 관계자들이었다. 오픈하우스의 주제는 '물러마티니-드루파 2004 그후 1년'이었으며 행사 기초연설자도 연설 내용을 인쇄후가공 산업의 새로운 발전 동향에 초점을 맞췄다. 방문객들은 여러 주제 영역에서 각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했다. PDF와 JDF 전문가인 스테판 재기는 특별 워크숍의 실례와 JDF의 실행 가능성을 설명했다. 물러마티니 중철 부문 마케팅 디렉터 게르하르트 쓰찬과 프레스 딜리버리 부문 마케팅 디렉터 플릭스 스티르니만, 중철 부문 세일즈 디렉터 롬프 피터, 온디맨드 솔루션 마케팅 디렉터 드래건 볼릭은 물러마티니의 현재 전략에 대해 밝혔다.

인민일보 아그파 어드벤처 CLS 도입



일일 발행 부수 3백만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인민일보가 최근 아그파의 신문사용 CTP 솔루션인 어드벤처 CLS시스템 2대를 추가 도입했다. 세 개의 카세트에 크기가 각각 다른 플레이트 1200장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어드벤처 CLS시스템은 단일 인쇄물 제작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카세트의 사이즈 교환이 가능해 최고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현재 인민일보는 지난 2001년부터 아그파의 폴라리스 100 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으며 전 자동화된 플레이트 로딩 작업을 통해 시간당 200장 이상의 월등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급되고 있는 판재도 모두 아그파 제품으로 어드벤처 CLS시스템에는 N91v 포토 폴리머, 기존에 공급돼 있는 폴라리스 100에는 리쏘스타 울트라 등이 쓰이고 있다.

Hindu 신문사 아그파 CTP 6대 설치



인도의 영자 유력 일간지인 Hindu 신문사가 아그파 CTP 시스템 7대를 도입, 설치했다. The Hindu지 본사에는 폴라리스 XDV와 어드벤처 DL 2대 등 총 4대가 설치됐고 Chennai, Tiruchi에 각각 1대씩의 폴라리스 XTV CTP 시스템이 들어섰다.

기준에 보급돼 있는 1대의 아그파 CTP 시스템을 더하면 총 7대가 설치됐다. 발행부수가 100만부에 이르고 있는 The Hindu사는 12개의 분공장에 종업원 수만 3천명 이상인 인도의 대형 신문사 중 하나다.

지난 2003년부터 필름 기반의 제판공정을 CTP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유럽 내 아그파 CTP 운용 업체와 벨기에 스트로베에 있는 공장을 수차례 방문해 CTP시스템에 관한 노하우를 터득한 바 있다. 현재 본사와 분공장에서는 이 같은 CTP 시스템의 완벽한 적용을 위해 아키텍스 워크플로를 제작, 운영 중에 있다.

아그파 신문사용 CTP 시스템 공급 호조

아그파는 최근 전 세계 유명 대형 신문출판 업체들과의 바이올렛 레이저 CTP시스템 공급에 대한 신규 계약 건이 순조롭게 성사됐다고 발표했다. 총 거래 규모는 소모품을 제외하고도 6백만유로에 이른다.

아그파 신문용 바이올렛 레이저 CTP시스템은 전 세계에 현재 1200대 이상이 설치돼 있다. 이번 계약으로 아그파는 신문사용 CTP 시스템 최다 공급 업체임을 재확인시켰다. 유지 보수비용이 저렴한 CTP시스템은 첨단 기술이 집목돼 구동성 면에서 탁월한 속도를 자랑하며 신문 데드라인의 정밀한 정확성이 고객사들로부터 호평을 이끌어 내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국제기능경기대회 시설지원

세계적인 인쇄기 메이커인 하이델베르크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린 제38회 국제기능경기대회(WorldSkills Competition)에 인쇄 시연을 위한 인쇄기와 재단기를 지원했다.

국제기능경기대회는 훈련생을 위한 직능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로 22세 이하만 참여할 수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인쇄 부분이 선보인 이번 대회는 39가지 경기가 펼쳐졌다. 하이델베르크사는 이번 대회에서 인쇄 시연 대회를 지원하는데 있어 4대의 프린트마스터 PM52-4 인쇄기와 2대의 폴라 재단기를 제공했다. 심판관들과 선수들은 7개국(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독일)에서 참여했으며 선수들과 심판관들 모두 PM52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다.

이번 대회의 인쇄부문에서는 요구된 작업에서 최고의 인쇄물을 제작해 낸 벨기에의 요르단 폴레인(Jordan Poulain)이 세계 우승을 차지했고 독일의 벤자민 발라선데람(Benjamin Balasunderam)이 2등, 스위스의 스테판 더러(Stefan Durrer)가 3등을 차지했다. 다음 국제기능경기대회는 2006년에 일본에서 개최된다.

후지필름 1천번째 바이올렛 CTP 판매

후지필름의 헤멜 헴프스테드(Hemel Hempstead) 영국 지사는 최근 2002년 IPEX 전시회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한 바이올렛 CTP 시스템을 이후 단 3년 만에 1천번째 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천번째로 판매된 Fujifilm Saber Luxel V-6 CTP B2 플레이트세터는 영국에 있는 킹피셔프레스(Kingfisher Press)사에 설치될 예정이다.

킹피셔프레스사의 프로덕션 매니저 리처드 스티프(Richard Stiff)는 "바이올렛 기술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Fuji Saber Luxel V-6을 선택하게 됐다. 그리고 후지필름으로부터 소모품을 살 수 있다는 사실도 좋은 구매 조건이 됐다. 지금 만들고 있는 광범위한 플레이트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Fujifilm Brillia LP-NV 플레이트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킹피셔프레스사는 Saber Luxel V-6의 완전 자동화 버전을 설치하는 것을 통해 단 1명의 조작원이 1번의 작업으로 워크플로와 플레이트세터를 조작함으로써 매우 향상된 생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